

건축상의 의미와 한국건축문화대상 문제

The Value of Architectural Prizes and Problems in Korean Architecture Awards

최영집 / 건축사사무소 (주)건축연구소 탐 대표

by Choi Young-Jip

요즘 세상에는 참 상도 많다. 벼라별 상이 다 있다. 이루 다 상의 종류와 이름을 열거할 수는 없고 대충 상들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공로를 인정해 주는 상, 명예를 더 해주는 상이 있고 상업적 성격의 상들이 있다. 공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상은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게 자기 뜻을 펼쳐 남이 할 수 없는 업적을 쌓았거나 희생봉사를 한 경우 그를 발굴하여 귀감이 되게 하려는 뜻이 있을 테고 명예를 더 해주는 상은 그 사람이나 또는 작품이 한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하여 각 분야에서 특히 기록해두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주는 상일 것이다. 상들의 종류가 많다 하여도 대개 두 가지 성격들이 대부분이고 시행기관에 따라서 정부 각 부처나 각 기관에서 주관하는 훈장이나 포상 등의 각종 상과 민간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제정한 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와서 각종 상업주의에 물들고 광고영업적인 차원에 오염된 정체가 애매한 상들이 양산되고 있다. 상이라는 것을 빌미로 수상자에게는 영광을 안겨주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대지만 그 실은 상업적으로 조작되거나 인위적으로 연출된 상을 위한 상들로서 그 상의 진실과 권위가 의심스러운 상들이 많다. 또 시작은 그렇지 않았으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상업적인 마수에 걸려들어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변질돼 버린 상도 있을 것이다. 관에서 주는 상이나 훈장들도 수상자의 선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 수상을 거부함으로써 상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일도 있다. 하여튼 상이라는 것은 스스로 엄정하게 관리하여 날이 갈수록 상의 무게나 빛을 더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그 거창한 이름에 걸맞게 관과 언론과 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왔던 큰 상이다. 건축계의 상을 크게 가른다면 학술상·공로상·작품상들이 있겠는데 작품상으로는 건축가협회나 건축사협회 등의 건축작가단체에서 주관하는 상과 서울특별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회를 거듭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건축상들도 점점 권위를 쌓아가고 있고 수상자들에게도 명예와 함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들을 쓰고 있다. 건축전문단체가 매년 시행하는 건축상은 무엇보다도 건축계에서 순수하게 작품의 성과를 인정하고 기록해 나가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성과를 이룬 작가를 비추고 박수쳐 주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며, 본인에게는 더욱 정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는 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다 하겠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그러한 뜻으로 건축사협회가 일찍부터 시행에 왔던 건축사작품전이 발전하여 한국건축전으로 개명되었다가 더 큰 의욕을 갖고 상을 확대하고자 건설부와 신문사를 손잡게 된 것이다. 신문사는 희망했던 일이고 건설부로서도 명분있는 일이었다. 건축사협회가 먼저 제안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협회로서도 상을 더 알리고 상의 권위와 실리를 더하는데 건설부와 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7회를 거듭해오면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협회의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언론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없었고, 관이 개입되어 오히려 불편한 관계로 변질되어 온 것이 현실이었으며, 특정 신문사의 광고영업에 들러리 서는 꼴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는 신문사의 입김이 날로 커져 심사를 좌지우지하려는 일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협회에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98년 정기총회와 99년 임시총회에서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제8회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불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2000년, 21세기,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는 협회의 새로운 자존의 각오이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려는 진통이기도 한 것이다. 정부 관리 단체에서 스스로 독립된 전문가단체로 전환하려는 뼈아픈 몸부림이기도 한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권위와 신문사측의 회유가 그치지 않았지만 어떠한 압력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굳굳하게 협회의 방침을 지키기로 하였다. 당황한 신문사는 건설교통부를 통해 단독으로 강행하기로 하고, 「99 한국건축문화대상」작품출품을 회원들에게 독려하기 시작하였고, 과정과 영문을 모르던 일부 회원들은 출품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일부 건축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 건축사들이 회원들에게 상황을 알려야겠다는 충정으로 알림장을 돌리기도 하였다.

건축사협회는 명실공히 이제는 운명을 함께 해야하는 공동운명체인 전문가단체이다. 우리의 권익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21세기에 새로운 우리의 위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러한 문제는 단지 「건축문화대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이라는 보호막, 국내시장이라는 울타리는 없어지고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는 냉랭한 상황속에서 우리의 일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만들어나가야 하는 현실만이 있

을 뿐이고, 우리의 위상제고와 건축문화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뿐이다. 건축문화대상전의 탈퇴는 이제까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건축사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생존의 저항이다. 건축문화를 건축사가 책임진다는 선언이기도 하며, 건축만은 각종 상업주의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결단이기도 하다.

이제 경제나 모든 제도가 관과의 연결을 끊고 자생력을 갖추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공기업은 민영화되고, 국전은 민전이 되고, 각종 규제나 보호도 사라지고 오로지 실력과 능력만이 세계화시대를 살아가는 무기일 뿐이다. 이런 냉엄한 현실속에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슬기롭게 모색하고, 개인을 위해 협회도 살고 협회를 위해 개인도 살아야 한다는 물과 고기의 심정으로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건축문화대상전 문제는 그 작은 시험에 불과하다. 뜻을 모으고 단합된 힘을 보이면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작금의 현실속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돌아다녔던 마지막 알림장을 공개하며 혹시 모르고 있었을 회원들에게 문제의 진실을 전하고자 한다.

『99한국건축문화대상』전 문제와 우리 건축사의 행동 방향

건축작품 제작에 여념이 없으실 건축사 여러분의 건강과 건축계의 발전 더불어 우리 건축문화의 정착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건축사제도 수립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건축문화창달의 사명감으로 99 건축문화의 해 각종 행사를 아주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계의 헌신 속에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건축이 이제 단지 건설의 일부가 아닌 문화의 주역임을 자각한 때문이기도 하고, 그 주인공이신 건축사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99 건축문화대상전 거부운동을 통해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관과 언론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축사가 관의지시나 언론의 횡포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우리의 문제를 대차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가 철저히 요구됩니다.

서울경제신문사는 이번 사태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절충안으로 협회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라도 그들의 기본자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급한 나머지 각 사무소에 연락하여 누구누구도 내기로 했다하며, 출품을 중용하거나 회원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는 시간

책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명하신 우리 공동운명체 건축사여러분!

관은 이미 우리의 보호자도 아니고 울타리도 아닙니다. 보수윤율은 철폐되었고, 국제적인 무한 경쟁시대캐살까먹기식의 치열한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단합하여 한 목소리로 우리의 권익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일부 언론은 항상 건축계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고, 실체적으로 건축의 진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는 신사투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슬픔과 아픔속에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1000년을 자랑스럽게 후손에게 넘겨주기 위해 지금의 고생을 참고새틀을 짜기위해우리모두힘을합쳐 노력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생기더라도 조금만 참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멋있고 권위있는 건축상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때까지 계속 좋은 작품들을 만들고 계십시오. 찬란하게 발표할 기회가 올때까지 신내로 기다리십시오.

감사합니다.

1999. 10.

『건축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임』